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1. 인사말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규상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로
지난 화요일(11.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경영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권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쏠 금융권의 방역실태를 자체점검 하였습니다.

자체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감원은 콜센터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금융권은 방역지침을
대부분 잘 준수 중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상적인 금융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연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등도 재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2-1. 주식·채권시장 동향]

최근 11월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BIS)가 상승하고 수출도 2달 연속 증가세(전년 동월비)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의 새싹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 ('19.12월) 100.5 → ('20.3월) 78.4 → ('20.6월) 81.8 → ('20.9월) 9.4 → ('20.11월) 97.9

** 제조업 BIS : ('20.6월) 51 → ('20.9월) 68 → ('20.10월) 79 → ('20.11월) 85

비제조업 BIS : ('20.6월) 60 → ('20.9월) 62 → ('20.10월) 69 → ('20.11월) 73

주식시장이 외국인 매수세 확대* 등에 따라 KOSPI 지수가 2,600선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 (11.24일 2,617.76pt)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 외국인 순매수(조원 결제기준) : ('19년) 1.6 ('20년 3/4분기) △3.0 (10월) 1.4 (11.1~25일) 4.9

** 기존 KOSPI 최고치(종가기준) : '18.1.29일 2,598.19pt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 역시 스프레드의 축소세가 지속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美 IG(투자등급, Investment grade) 스프레드(bp) : ('19년말) 97.3 → ('20.10월말) 126.7 [+29.4]

유럽 IG 스프레드(bp) : ('19년말) 48.1 → ('20.10월말) 45.1 [△3.0]

韓 AA- 등급 스프레드(민평4사, bp) : ('19년말) 42.5 → ('20.10월말) 57.4 [+14.9]

특히, 비우량 등급 회사채의 경우 스프레드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축소*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SPV)가 가동되면서 발행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회사채 등급별 신용 스프레드(민평4사, 3y, 국고채 대비, bp) :

[AA] '19년말 42.5 → '20.10월말 57.4 [+14.9] [A] '19년말 132.7 → '20.10월말 160.7 [+28.0]

[BBB] '19년말 636.2 → '20.10월말 663.8 [+27.6]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SPV의 운영성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매입기간* 연장여부를 12월중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SPV 설립일로부터 6개월('20.7.14일~'21.1.13일)

[2-2.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정부의 적극적 금융지원정책(소상공인 대출 등) 및 풍부한 유동성 공급 등에 힘입어 우리경제와 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위기로부터 비교적 빠르게 회복해왔습니다.

다만, 시중유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그간 하향 안정화되던 가계대출 증가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였으며,

일부 유동성이 超저금리 상황에서 “높은 수익률”을 쫓아 주식 및 부동산시장, 최근에는 가상자산에까지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경제정상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관련 불투명성 또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증가가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건전하게 관리해 나가는 한편, 고위험 자산으로의 자금유입 동향 등 자산시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근절,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IPO 제도개선 등

[2-3. 최근 은행권 신용대출 동향]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지난 11.13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최근 은행권의 신용대출 동향을 점검하였습니다.

점점 결과,

11.23일(16영업일)까지 쏘은행권의 신용대출 증가세*는
지난달 같은 기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쏘은행권 월별 신용대출 증감(16영업일 기준, 주금공 양도분 포함, 조원) :
(8월) +3.1 (9월) +1.9 (10월) +2.7 (11월) +3.0

본격적인 대책시행(11.30일)에 앞서
일부 先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최근 신용대출 증가는
주요기업 IPO*에 따른 투자자금수요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청약증거금 : (하나기술) 5.0조원(11.13 ~ 16일), (제일전기공업) 6.9조원(11.17 ~ 18일)

금번 대책 발표 이후
은행들이 차주단위 DSR을 먼저 적용하는 등
자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신용대출 증가세가 점차 안정되고,
가계부채도 걱정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가면서,
신용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3-1. 코로나19 피해 연체채무자 지원 강화방안 시행기간 연장]

코로나19는
개인의 삶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등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가
연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난 4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제4차 비상경제회의, 4.8일)

- * 주요내용 : ①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대상 확대 → 단일채무자 연체방지
- ②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 강화 → 다중채무자 연체방지·재기지원
- ③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설 → 대부업체 등의 매입·과잉추심 방지

그 동안 ①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확대를 통해
9,925건(753억원)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② 신복위에서 6,380건(2,435억원)의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③ 20.2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연체가 발생한 금융권 개인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토록 하여
대부업체 등의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시행기간*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 * ①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 시행기간 6개월 연장(~'20.12월→~'21.6월)
- ②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 : 상시 제도화('20.12월~)
- ③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 매입대상 확대[연체 발생기한 6개월 연장(~'20.12월→~'21.6월)]

이러한 한시적 정책지원과 동시에
개인 연체자에 대한 상시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소비자신용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3-2. 코로나19 피해 항공업 경쟁력 제고]

코로나19는

기간산업인 항공업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세계 항공업이 코로나19 등으로

붕괴(meltdown)에 가까운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美, 유럽 등 주요국은 항공업을 지키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4년이 되어야 '19년 수준의 항공수요 회복할 것으로 전망

** 주요국 지원계획 : (美)약 30조원(250억 달러), (獨)약 12조원(90억 유로), (佛)약 20조원(150억 유로)

우리 항공업의 정상화도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의 생존을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합병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개편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경우

① 兩 항공사 및 관계회사 임직원 약 3.7만명,
항공 협력업체 약 6만명 등 다수의 일자리를 지키고

② 수조원에 달하는 정책자금 등
국민부담을 절감하며

③ 항공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구조에 대한 일부 우려와 관련하여, 국유화를 방지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내 항공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향후 합병과정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이끌어내고

일자리 및 소비자 편익을 지켜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향후 항공업과 관련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4. 마무리 말씀]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로 인해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근본적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일상과 방역의 공존을 위한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사회 쏠 분야에서 ①디지털화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이후 경제재건 방향으로
과거로의 복귀(build back)가 아닌
더 나은 미래(build back better)를 지향하면서
②녹색성장(Green rebooting)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 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피해 복구를 위해 그린산업 혁명(a Green Industrial Revolution)을 위한 10개 계획(10-point plan)을 수립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③금융시장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중 유동성이 ①디지털·②그린 분야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③금융 리스크 요인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